

< 빙하(氷下)의 심장 >

" 글썸, ... 어떻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나? "

[인장]



[외관]



청발, 파란색과 보라색의 파이아이, 잔근육이 붙은 몸, 잔주름, 여유로운 미소. 드문드문 보이는 자잘한 흉터.

[이름]

아르델 R 로즈라시오 / **Ardell Rin Roselacio**

[나이]

53세

[성별]

퀘스처너리

[키 / 몸무게]

187cm / 78kg

[국적]

라즐리 시국

[학부]

방어학부 (디케아)

[성흔 (이능력)]

차용

냉기, 한기. 얼음을 다루는 능력.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거나, 그 외의 것을 얼린다. 능력이 달는 범위는 제법 한정되어 있어, 먼 곳까지 달지는 못하지만 그것 만으로 주변을 지키는 것에는 충분했다. 그에게 무기는 필요 없었다. 손만 뻗으면, 금방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어, 원거리 전투에서는 제법 어려움을 겪고는 했다. 생각보다 그리 공격적이진 않은 능력이었기에, 본인은 그 능력을 지키는 것에 사용하기로 했다.

[스테이터스]

공격력 : 1

방어력 : 27

지력 : 2

설화 : 0

[스킬]

헌신 - 설정한 아군의 피해량을 1턴 동안 대신 받음

[성격]

K - 여유로운, 느긋한, 장난끼 많은, 노련한, 나름의 상냥함.

_항상 입가에 맴도는 것은 여유로운 미소. 가벼운 말투, 느긋한 행동. 어찌 보면 궁뜨다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본인도 자각하고 있지만..., 평소에도 힘이 들어가있으면 피곤하다나. 뭐 그런 핑계를 대고 마는 것이다. 그렇지만...남주 파견의 경험이 있고,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을 보아 실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

_그는 실제로 제법 많은 전투를 경험했으며, 소속했던 부대에서도 나쁘지 않은 평판을 유지했다. 남주 본토에 파견되었던 경험도 있었다.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신중함. 그렇지만 종종 보이는... 가벼운 행동들은 그가 못미덥게 느껴질 수 밖에 없게 만들곤 한다. 그럼에도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_적당한 행동 안쪽에서는 그 나름의 상냥함이 묻어났다. 어쩔 때는 세심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 눈치가 없을 때도 있었다. 이리저리 튀기도 하는 알 수 없는 사람. 가끔은 속내를 숨기는 듯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 당신을 해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의 장난끼는 분위기를 너무 우울하거나 죽지 않게했고, 숨기려는 상냥함이 드러나게도 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 글썄, 그의 그런 태도를 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기타]

L : 적당한 긴장감, 독서와 숙면, 여유로운 시간.

- 긴장감을 좋아한다는 것은 의외의 일일지도 모른다. 그야 , 이런 곳에서 긴장할 일이라곤 싸움밖에 없지 않는가. 게다가 그는 싸움이 그리 좋은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어째서일까. 나쁜 버릇이 들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싸움을 즐기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니.
- 독서와 숙면, 여유로운 시간. 휴식 시간! 그는 쉬는 시간이 좋았다. 당연하지! 쉬는 시간은 누구라도 좋아한다! 편하게 쉬며 즐기는 시간이 좋다. 다과와 차가 함께 있다면 더 좋다. 게다가 대화할 상대까지 있어준다면,

싫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 좀 처럼 알기가 어렵다.

남주 본토 파견이 된 적 있었으며, 그때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 생환 이후로는 원래 있던 부대로 돌아가 생활했던 모양. 인간 관계는 대체로 원만하며, 발도 제법 넓은 편. 상사에겐 싹싹하고 부하에겐 친절할 편. 친근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다.

백작가의 둘째. 귀족이라는 것이 그리 티나진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품위있는 사람은 아니다.

계약마

- 이름조차 잊혀진 옛 얼음의 신. 한참을 잠들어 있다가 깨어났다. 목적도 없이 사람의 발길이 없는 곳을 떠돌던 것을 발견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나 ... 그리 중요한 이야기도 아닐 것이다.